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 관람객 100만 명, K-뷰티를 세계에 알리다



지난 5월 3일 개막한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 세계박람회(이하 오송 뷰티 박람회)'가 관람객 1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뷰티 산업을 세계에 알렸다. 24일간 열린 오송 뷰티 박람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국내 최초로 화장품 뷰티 산업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박람회로 눈길을 끌었다. 9개의 전시관과 경연대회장, 공연장으로 구성됐으며 총 면적은 29만 1,000㎡에 달하는 오송 뷰티 박람회는 화장품 · 뷰티 업계와 일반인들의 호응을 모두 얻기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모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업계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산업관은 물론, 관람객들을 발길을 끌 화장품 할인매장과 각종 뷰티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됐으며 공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람회장 입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움의 역사와 시대적 변천을 확인하는 '월드뷰티관'이 관람객을 맞이했으며,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체험관'도 관람객의 인기를 모았다. 5월 26일 24일의 대장정을 마친 2013 오송 화장품 · 뷰티 세계박람회는 산업계, 학계, 일반 관람객 모두 참여하고 즐기는 명품 박람회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며, 우수한 대한민국 화장품 뷰티 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오송을 브랜드화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